

# 韓半島人の 口腔狀態와 口腔醫學 〈現代齒科醫術의 流入以前까지〉

기창덕 치과의원 원장

가톨릭의과대학 외래교수

의학박사 기 창 덕

## V. 民俗信仰과 口腔領域의 民間信仰

우리나라의 庶民間에는 藥方이나 鍼灸 以外에 民間療法 즉 民俗信仰의 療法, 巫俗信仰의 療法, 佛敎信仰의 療法, 道敎, 儒敎의 仙道術에 依한 療法등과 民間人의 오랜 經驗의 依한 療法인 汗蒸, 溫泉, 冷泉療法과, 또 民間醫學에 依한 民俗療法등이 우리의 民族과 더불어 傳承되어 現存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民俗 信仰중에서 韓民族은 精靈을 崇拜하는 原始宗教라 할 수 있는 巫俗信仰이 根幹을 이루고 있으며 佛敎, 道敎, 儒敎도 어느사이에 그 一部가 巫俗信仰에 融和되어 요사이의 原形을 찾아 보기 어려운 程度로 그 形態가 變하여 民俗信仰의 內面에 흐르고 있는 宗教史는 正確히 말해 巫敎를 바탕으로 한 巫, 佛, 仙의 綜合宗教史라 하겠다<sup>1)</sup>.

우리나라의 民俗信仰에 關해 現在 할 수 있는 資料로는 檀君神話에 이미 桓雄이 諸靈을 거느리고 自然과 人間의 生活을 支配했으며 生藥을 먹이고 百日忌로 動物에서 人間으로 轉生케 했다는 過程등의 韓民族으로는 最初의 巫俗의

인 民俗信仰으로 볼 수 있는 記錄<sup>2)</sup>이 있으며 그후 三韓의 祭天의 記錄<sup>3)</sup> 三國時代의 新羅二代 南解王이 巫였다는 記錄<sup>4)</sup>등 즉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등 史書에 占卜, 巫俗, 洞神祭등의 資料가 보인다. 이러한 文獻的 考察로 보아 우리 나라의 民俗信仰은 檀君朝鮮에서 부터 三韓, 三國, 高麗, 朝鮮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 民俗信仰과 治病

우리의 말은 우리 民族의 歷史的, 產物인 固有의 生活思想의 公表章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우리말중에 疾病을 앓고 있을 境遇 그 狀態를 “病이 들었다” “感氣가 왔다” “精神病에 걸렸다”는등 靈的存在物이 侵入하고 있는 狀態 또는 靈的存在物에 잡혀 있는 狀態로 말 하고, 疾病이 治癒되었을 境遇에는 “感氣가 나갔다” “精神病이 가셨다”는등 靈的存在物이 退去한 狀態로 表現한다. 이러한 表現은 오랜 期間 모

1) 柳東植 : <李朝時代의 文化와 宗教의 狀況>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出版部, p.169, 1975. 2) <古朝鮮王儉朝鮮> 校勘 三國遺事 卷一 紀異卷第一, 民族文化推進會, p.32-34, 1973. 3) <祭祀> 校勘 三國史記 卷第三十二, 民族文化推進會, p.291-293, 1973. 4) <第二南解王> 校勘 三國遺事, 卷一 紀異卷第一, 民族文化推進會, p.52, 1973. 5) 金泰坤 : <民間信仰의 宗教史의 基底>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社, p.12, 1987.

는 疾患의 原因이 邪鬼 또는 精靈, 惡靈이 人體에 侵入하여 人體의 一部 또는 한 器管을 占有하고 組織의 破壞, 또는 臟器의 機能을 攪亂 혹은 中止케 함으로 疾病이 發生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굳어진 生活思想의 表現으로 짐작된다<sup>6)</sup> 이러한 疾病觀을 가진 우리 民族은 當然히 疾病의 豫防은 勿論, 疾病의 防禦 또는 救治를 爲해서는 災禍의 境遇와 같이 邪鬼나 惡靈, 精靈에게 祈讓해야 한다고 믿어 왔다고 본다<sup>6)</sup>.

이 民俗信仰에는 家神信仰, 洞神信仰, 自然物信仰, 邪鬼信仰, 占卜, 豫兆, 禁忌, 呪符, 民間醫療등 土俗의인 것과 民間의인 것, 또는 慣習의인 것이 있는데 이 모두가 疾病災禍를 豫防 또는 除去 즉 除去招福하여 家庭의 安寧을 바라는 信仰이다<sup>7)</sup>. 특히 疾病에 關해서는 앞에서 말한 疾病觀에 따라 靈的存在物 즉 鬼神이나 精靈, 惡靈이 사람의 몸에 侵入함으로서 일어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疾病의 豫防治療에는 鬼神이나 惡靈의 侵入을 막는다던가 追放함으로서 健康을 維持하고 또는 健康을 回復케 하는 힘을 이들 民俗信仰에서 손쉽게 얻을려고 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思想은 國家에서도 매 한가지로 朝鮮朝初 建國하면서 圓壇을 設置하고 天神에게 祭祀를 올렸으며<sup>8)</sup>, 李太祖가 卽立하기 前에 太白星을 빌었더니 感應이 있었다고 해서 登極後에 祭星臺를 만들었고<sup>9)</sup> 서울에서는 靈星, 老人星등에 擧祭한 記錄<sup>10)</sup>등이 있어 民間의 民俗信仰과 같이 自然神에 대한 信仰이 高麗時代以前의 天體神처럼 接하기 어려운 天然神보다는 具體性있는 神은 如前히 믿어 國泰民安을 祈願하기 爲해 致祭해 왔던 것 같다<sup>11)</sup>.

한편 朝鮮時代에 漢城 各 官司에는 반드시

府君堂(付根堂)이라는 神祀가 있어 每月 한차례 告祀를 지냈다. 官司마다 信仰對象이 달아 刑曹에는 諸葛孔明, 兵曹에는 文天祥, 漢城에는 恭愍王, 典獄에는 東明王, 補聽과 司譯院에는 宋氏夫人 등을 모시고 있었으나 朝鮮朝末 光武 年間에 警務使 金在豐의 命令에 依해 毀撤되었다<sup>12)</sup>.

1. 家神(家宅神) 信仰: 禮에 五祀가 있는데 2月 戶에 祭하고 5月에는 부엌에 祭하고, 6月에는 土地에 祭하고, 11月에는 우물(井)에 祭했으며 모두 常典이 있었다. 즉 온 家宅 안에 神이 없는 곳이 없다. 이러한 神을 總稱하여 家宅神(家神)이라 하며 城主神, 土主神, 帝釋神, 業王神, 守門神 및 竈王神으로 信奉한다<sup>13)</sup>. 民間에서는 各自 自己 집안의 要所마다 그 處所를 管掌하는 神을 모시고 主婦가 祭祀告祀등을 지내는 信仰이다<sup>14)</sup>. 이 家神信仰은 民俗信仰 중에서 가장 基本的인 信仰으로 家庭의 幸運과 富貴, 그리고 土俗의인 疾病觀에 따르는 口腔領域의 疾患을 包含한 모든 疾患의 豫防과 退治로 家庭의 安寧을 祈願하는 信仰風俗이다<sup>15)</sup>. 이들 家宅神의 任務와 모시는 자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 1) 城主(成造) 神: 城主란 家宅神을 統管한 名稱이다. 10월에 巫堂을 불러 祈禱를 하는데 이를 安宅이라 하고 安宅神을 섬기는데 “城主釋” “城主풀이” 또는 “城主받이굿”이라고 한다. 民家에서는 10월에 秋收가 끝나면 新穀으로 시루떡을 찌고 果酒를 베풀어 놓고 굿을 하고 이 成造神은 집안의 가장 中心이 되는 大廳의 梁 柱 밑에 모시는 것이 常例이다.\*
- 2) 土主(土主)神 또는 地神: 집터를 맡아보며 집안의 厄運을 걷어 주고 財福을 주는

6) 村山智順: <防鬼退鬼> 朝鮮의 鬼神, 朝鮮總督府, p.256-257, 1929. 7) 金泰坤: <民間信仰의 類型과 分布> 上揭書 p.17. 8) 서울特別市: <圓丘壇> 서울전통문화 제2권, p.365. 1982. 9) 村山智順: <天體神> 朝鮮의 鬼神, 朝鮮總督府, p.149, 1929. 10) 村山智順: 上揭書 p.148. 11) 任東權: <諸神信仰> 韓國民俗學論叢, 集文堂, p.409, 1987. 12) 李能和: <府君堂(付根堂)> 朝鮮巫俗考, 啓明 啓明俱樂部, 民俗苑, p.52, 1927 13) 李能和: <家宅神> 上揭書 p.54. 14) 河孝吉: <家神信仰> 서울六百年史 民俗篇, 서울特別市, p.629, 1990. 15) 家宅神(家神)에 關해서는 \*李能和: 朝鮮巫俗考 p.54-60, 1927, \*\*河孝吉: 서울六百年史 民俗篇 p.629-647, 1990. \*\*\*金泰坤: 韓國民間信仰研究 p.18-20, 1987, \*\*\*\*高대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大觀 第三卷 p.65-129, 1982. \*\*\*\*\*文貞玉: 民俗信仰 p.437-469, 1989. 등을 參照하였음.

16) \*표는 15)의 \*引用書를 表示함.

神이다. 집의 뒷뜰 장독대 옆에 “터주가리”로 만들어 모신다. 10월에 秋收가 끝나면 집집마다 安宅神祀를 올리는데 巫堂들의 作法이 城主를 먼저하고 土主를 뒤에 하므로 “土主풀이”를 “後殿풀이”(뒤전풀이)라고도 한다.\*

- 3) 帝釋神：帝釋을 主殺神이라고도 하는데 쌀을 흰 항아리에 담아 樓房에 安置하고 해마다 가을에 穀食이 익으면 햅쌀로 바꾸어 담고, 담겨 있던 舊米로 白屑餅을 만든 다음 素饌과 淸酌으로 神에게 獻供한다. 巫女가 노래하면서 欽亨을 勸하는 것을 “帝釋거리”라 한다.\*
- 4) 業王神：業王이란 財神을 말한다. 民間에서 業王을 信奉하는 種類로는 人業, 蛇業, 魚業 등으로서 家内の 淨潔한 곳을 擇하여 壇을 만들고 土器에 禾穀을 담아 壇上에 두고 벼집으로 주저리를 만들어 씌운다. 이를 扶婁단지 또는 業王가리라고도 한다. 이 業王가리에 對하여 李能和는 “穀物이 쌓여있는 곳에서 구렁이(蛇)와 족제비(兪)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守護神으로 보고 傳來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 5) 籠王神：부엌이란 飲食을 만드는 곳으로 生活上 가장 重要하다. 이러한 까닭에 朱子가 祭하였기 때문에 宋朝 때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朝鮮朝 中期에 이르러서는 多數의 常班이 籠王에게 祭祀를 지내게 되었으며 “鑿飯”(노구매)를 使用하였다. 때로는 長汀으로 불을 밝혔는데 이것을 因汀이라고도 한다.\* 또 籠王神은 三神과 함께 育兒의 機能이 있으면서 집안에서 일어 나는 일을 玉皇上帝에게 告하는 任務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6) 守門神：〈類書〉에 依하면 皇帝時에 두 兄弟가 있었는데 첫째는 神茶라 했고 둘째는 鬱壘라 했는데 이 두 鬼神은 鬼神들을 죽이는데 能熟하였다고 한다. 後人들이

每번 朔方에 이르렀을 때에 큰 桃樹가 三千里를 뻗었고 그 밑에 두 神이 草索을 나란이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것이 傳來되어 除夕이 되면 桃符를 만들어 窓門에 붙이고 大門에 畫像을 그려 門神이라 한것이 널리 퍼져 守門神으로 凶鬼를 막게 하고 侵入한 鬼神을 죽이게 하는 것이다.\*

- 7) 其他 家宅神으로는 三神, 祖上神, 七星神, 철룡신, 厄死靈, 帝釋, 疫神, 門神, 廁神, 家業守護神등이 있다.\*\*

以上과 같은 家宅神에게 祭祀을 올리는 主婦로서는 他人에게 呼訴하기 어려운 모든 집안 事情을 議論할 수 있는 唯一한 對象이고 집안의 災殃은 勿論 口腔疾患이나 其他 어떠한 疾患이고 간에 精誠을 다 하여 善處를 祈願할 수 있는 依支의 神이라 할 수 있다.

2. 洞神 및 自然神信仰：高麗時代부터 朝鮮朝에 이르는 城隍神祭는 國行祀典으로 하여 왔다<sup>17)</sup>. 그러나 어느 사이에 道路邊이나 山嶺에 仙王堂, 또는 城隍堂이라는 祠堂을 짓고 洞里的 守護神을 共同으로 모시는 洞神信仰<sup>18)</sup>이 되었고, 山川의 岩石이나 樹木을 神靈視하는 信仰도 깊어 紫霞門밖의 祈子岩<sup>19)</sup>(道路工事로 破壞 1970頃) 이라던가 仁王山의 “禪바위”<sup>20)</sup>등은 그 옛부터 岩石求嗣의 民俗을 낳은 곳이고 現存하는 大峙洞의 神木같은 巨槐壽를 紀元을 알 수 없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堂神木으로 崇尚해 내려왔다<sup>21)</sup>던가 서낭당, 山神堂, 장승近處의 樹木을 神木으로 認定하고 神靈視하여 伐木을 하지 않는 風習<sup>22)</sup>이 이어 내려온 自然神에 대한 信仰도 個人의 所願을 祈求하며 마을의 守護와 安寧을 祈願하는 배놓을 수 없는 民俗信仰이다.

3. 占卜信仰：人類가 神에 違背되는 行動을 했을 境遇 神은 곧 罰을 준다고 믿어 故意가 아니고 無意識중에 行해진 일에 對한 神意나 이미 神의 노여움으로 일어난 疾病에 對한 神意를 알아 낸다던가 앞으로 일어 날 수 있는

17) 李能和：〈國行城隍祭〉上揭書 p.47. 18) 張籌根：〈洞祭의 歷史〉韓國民俗學概說, 學研社, p.196-199, 1990.  
19) 李在崑：〈岩石信仰〉서울六百年史 民俗篇, p.803, 1990. 20) 서울特別市：〈禪바위〉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p.843-844. 1982. 21) 李在崑：〈植物信仰〉上揭書, p.806. 22) 李在崑：〈植物信仰〉上揭書, p.805.

일을 미리 알아내는 技術을 占卜이라 한다<sup>23)</sup>.

이 占卜에는 夢占, 神祕占, 作卦占, 觀相占 등 人爲의인 占卜이 있는데 이는 私의呪術者인 占匠(점장이), 太子(태주), 回巫(돌무당), 聖人(세인)등으로 불리우는 所謂 生巫, 祈禱業者, 卜術者, 盲人占者, 僧侶 등이 豫言, 治病, 祈除의 機能을 發揮한다<sup>24)</sup>.

巫人은 簡單한 巫具를 利用하여 爰感을 일으켜 神과 意思를 交換하여 神意를 把握하여 問卜者에게 傳達하고 占匠이나 卜術者는 主로 擲錢, 算筒등으로 六爻作卦法에 依하여 吉兇禍福을 占치고 盲人占者는 算筒이나 松葉 등으로 六爻占을 친다<sup>25)</sup>.

1) 夢占: 解夢이라는 말은 夢事吉兇豫知法 즉 夢卜을 말하는 것으로 星湖는 “大卜占夢”<sup>26)</sup>에 <周禮>의 꿈을 占치는 方法을 說明하면서 “春官 太卜이 三夢에 對한 法을 말았는데 致夢은 夏後氏가 지었고, 觸夢은 周人이 지었고, 咸陟은 殷人이 지는 占書들인데 뎃뎃한 수는 10가지 인데 運營하는 方法은 90으로 나뉘었다.” 하였고 占夢도 “日月星辰으로 六夢(正夢, 惡夢, 思夢, 寤夢, 吉夢, 懼夢)을 占친다고 紹介하고 있다. 五洲는 “夢辨證說”<sup>27)</sup>에서 星湖와 같은 說明을 하였고 “夢境辨證說”<sup>28)</sup>에서는 꿈은 곧 사람이 잠자는 가운데 遊魂이 變한것이라 하고, 꿈에는 五境이 있는데 靈境, 寶境, 過去境, 現在境, 未來境 등으로 精神이 躁急하면 꿈이 생기고, 精神이 安定되면 꿈이 없어 진다고 하면서 “자주 惡夢을 꾸는 境遇 첫째는 魂 妖이고, 둘째는 心誠이고, 셋째는 1'賊인데 惡夢을 깨고 나서는 왼손으로 人中을 27번 올려 쓰다듬고 齒牙를 27번 마주치면 凶한 꿈이 吉한 꿈으로 바꾸어 진다고 惡夢을 바꾸는 方法을 紹介하고 있다. 齒牙나 口腔이 關聯된 夢占을 몇가지 紹介한다<sup>29)</sup>.

\* 꿈에 齒牙가 솟아 보이면 長壽한다.

\* 꿈에 齒牙가 빠져 보이면 親戚이 死亡할 徵兆다. 윗니는 아버지, 아랫니는 어머니, 앞니는 손아래, 犬齒는 손윗사람을 象徵한다.

\* 어금니가 빠지고 피가 나지 않는 꿈은 父母의 喪을 當한다.

\* 입안에 털이 나는 꿈은 財數가 있고 福祿을 누린다.

\* 입이 커져 보이는 꿈은 財物을 얻고, 입을 傷하는 꿈은 敗家亡身한다.

\* 입이 막히고 飲食을 먹지 못하는 꿈은 病에 걸리기 쉬우니 操心하라. 婦女子는 口舌數가 있다.

\* 혀바닥에 털이 나 보이는 꿈은 官職에 變動이 없고 吉하다.

2) 神祕占: 神靈이 占者의 肉身에 降臨 憑依케 함으로서 占者 自身이 一時 神靈이 되어 未來의 吉兇을 占쳐 주는 占法을 神託占이라고 하고 또 占者가 撒米, 擲錢, 神將竿등 各種 器物에 神靈을 憑依케 하여 이 器物에 나타난 神意를 把握하여 未來의 吉兇을 占치는 것을 神示占이라고 한다<sup>30)</sup>.

<星湖僊說>의 “魘魅蠱毒”<sup>31)</sup>에 “어린애의 精魂을 竹筒에 가두어 魘魅를 만들어 이 鬼神을 사람의 머리카락 또는 입에 붙게 하여 病을 만들고 患者나 家族의 要請에 따라 神婆는 魘魅(어린애의 鬼神)에게 付託하여 病이 낫도록 한다.”고 하고 “小兒鬼”<sup>32)</sup>에서는 一名 “太子鬼”라 하는 어린애의 魂魄이 妖邪스러운 말로 사람의 吉兇 禍福과 먼 地方의 事情같은 것을 묻는 祟의 意見에 따라 빠짐없이 알려준다.”고 하면서 근자에 와서는 없어져서 볼 수가 없으나 媚道가 아니었나 한다고 하였다.<朝鮮巫俗考>에는 “太子鬼或明圖鬼”<sup>33)</sup>라는 題目으로 “幼女の 亡魂이 巫婆에 接托되어 태주(太子鬼)가 되는데 漢城에서는 태주아씨라 부르고 嶺南地方에서는 明圖(明圖鬼)라 하는데 이 태주가 問

23)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占卜> 韓國民俗大觀 3 民間信仰·宗教, p.330, 1982. 24)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占卜> 上揭書 p.333. \*) 崔吉城: <占卜者> 서울六百年史 民俗篇, p.769. 25)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占卜> 上揭書 p.333. 26) 李 澗: <大卜占夢> 星湖僊說 第二十四卷, 民族文化刊行會, IX, p.176. 1985. 27) 李圭景: <夢辨證說> 五州衍文長箋散稿 上, 明文堂, p.448, 1982. 28) 李圭景: <夢境辨證說> 上揭書 下, p.771. 29) 金千齊: <꿈의 部分에 關한 꿈> 萬方吉凶寶典, 明文堂, p.180, 1989. 30) 村山智願: <神祕占> 朝鮮의 占卜と 豫信, 朝鮮總督府, p.340, 1933. 31) 李 澗: <魘魅蠱毒> 星湖僊說 第5卷, 民族文化刊行會, II, p.251, 1985. 32) 李 澗: <小兒鬼> 上揭書, p.252 33) 李能和: <太子鬼或圖鬼> 朝鮮巫俗考, 啓明俱樂部, p.63, 1927.

卜者의 要求에 따라 現場을 踏査하고 發福 禍敗의 說明을 神婆의 傳宣으로 即答 또는 西天(西域國)의 부처님께 물어 對答하는 수도 있다”하였다.

3) 作卦占 : 이 占法은 陰陽五行이나 數理를 基礎로 卦를 만들어 理數의으로 解釋하여 吉兇을 判斷하는 方法으로 六爻占, 算筒占, 松葉占, 四柱占 등이 있으며<sup>34)</sup> 占匠을 위시하여 卜術者, 盲人占者, 僧侶등은 물론 試圖業者들이 많이 利用하여 占歲의 行事로 流行되어 온 占法이다<sup>35)</sup>. 우리 周邊에는 이미 오래전 부터 占歲의 行事로 家族이 모여 食口의 一年運數를 占쳐 보는 土亭祕訣<sup>36)</sup>이 있고, 病人算占, 天干字病占, 地支字病占 등 疾病과 關聯을 가진 占俗도 傳해져 오고 있다<sup>37)</sup>.

4) 觀相占<sup>38)</sup> : 사람의 顔面, 骨格, 手足 또는 音聲이나 舉動등에 나타나는 特徵을 보아 그 사람의 性格, 心性, 運命 등을 判斷하는 占으로 民俗信仰으로서의 占卜이라기 보다는 觀相學인 先驗의 演譯科學에 의해 成立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出處가 確實하지는 않으나 口腔과 齒牙의 相을 보고 未來를 判斷하는 口相을 列舉해 본다<sup>40)</sup>.

\* 四字口 : 입끝이 뚝뚝하며 빛나고 위아래 입술이 가즈런한 模樣을 가지면 聰明하여 여러 사람 속에서 뛰어 나며 才操가 있어 學問에도 뛰어 나며 富貴를 兼하여 큰 벼슬을 하게 된다.

\* 方口 : 입이 모가 나고 입술이 가즈런하며 齒牙가 보이지 않으며 입술이 붉고 빛나며 潤澤한 模樣을 가지면 富貴와 榮華를 누리게 되며 모든 일이 亨通하게 된다. 千石을 넘는 祿을 먹을 수 있으며 齒牙가 白玉같이 흰빛으로 웃어도 잘 보이지 않는다.

\* 仰月口 : 달과 같이 생긴 模樣으로 위로 向하여 둥글고 齒牙가 희고 입술이 붉어 端正한 模樣을 가지면 훌륭한 文章과 아름다움이 세

상에 뛰어나며 富貴하며 이름이 政界에 날린다.

\* 彎弓口 : 활(弓)을 잡아 당겨놓은 模樣이며 입끝이 위로 向하고 兩脣이 두둑하며 붉고 鮮명한 模樣을 가지면 精神力이 좋으며 氣分이 明朗하며 富貴가 中年에 돌아오며 幸福한 生活을 하게 된다.

\* 吹火口 : 불(火)을 부는 模樣면 같이 입술이 뾰족한 模樣으로 입을 벌리고 端正하지 못한 模樣을 가지면 모든 일이 잘되지 않으며 아까운 歲月만 虛送하게 되며 膝下에 아들이 귀하며 가난한 살림끝에 죽게 된다.

\* 皺紋口 : 입술에 주름이 많으며 말소리가 우는것 같으며 입끝이 밖으로 튀어나온 模樣을 가지면 孤單함을 어쩔 수 없으니 한平生 奔走한 手苦만을 하게 되며 財物은 모아지지 않고 혹 어려서 幸福하게 자랐다 하여도 末年에는 苦生을 면할 수 없으며 子息은 僥倖히 한명을 갖게 된다.

\* 櫻口 : 입이 크며 입술이 제비(燕)의 턱과 같고 齒牙가 石榴씨같이 총총히 생겼으며 가지런한 模樣을 가진 사람은 마음씨가 溫柔하며 聰明이 뛰어나고 높은 벼슬을 하게 되며 富貴를 兼하게 된다.

\* 牛口 : 소(牛)의 입模樣으로 兩脣이 두둑한 模樣을 가지면 平生동안 衣食이 豐貴하며 마음이 仁慈하고 福이 限없이 많으며 幸福한 生活을 하게 된다.

\* 龍口 : 兩脣이 豐滿하여 입끝이 가즈런한 模樣을 가지면 統率하는 特別한 能力을 가졌으며 높은 벼슬을 하게 되고 金冠玉帶를 두르게 된다.

\* 虎口 : 호랑이(虎)의 입과 같이 크고 잘 덮이며 입을 벌릴 때는 주먹이 들어갈 程度로 큰 模樣의 입을 가지면 萬一 貴하지 않으면 크게 富者가 되어 玉과 金을 쌓고 즐거운 生活을 하게 된다. 또 여러사람 가운데 威嚴이

34) 村山智順 : <作卦占>朝鮮의 占卜と 豫言, 朝鮮總督府, p.427-489, 1933. 35) 高大民族文化研究所 : <占卜者> 韓國民俗大觀 3, 民間信仰·宗教, p.330. 1982. 36) 李干齊 : <土亭祕訣> 萬方吉凶寶典, 明文社, p.72-147, 1989. 參照. 37) 高大民族文化研究所 : <占卜의 歷史> 上揭書, p.330. 38) 觀相占에 口腔領域의 占에 關해서는 \*)趙誠佑 : <口論> 觀相大典, p.175-196. \*\*)金干齊 : <論口詩, 論齒詩> 萬方吉凶寶典, p.293-294. \*\*\*)村山智順 : <口相> 朝鮮의 占卜と 豫言, p.516-518. 등을 參照.

있게 보인다.

- \*羊口 : 염소(羊)의 입模樣으로 길며 끝이 뾰족하고 兩脣이 얇으며 수염이 없는 模樣의 입을 가지면 他人들이 믿어주지 않으며 勞力을 하나 가난을免치 못하며 밥을 먹을 대는 개(犬)와 같이 먹으며 모든일이 잘되지 않아 虛妄한 일을 많이 겪게 된다.
- \*猴口 : 잔나미의 입模樣으로 兩脣이 길며 人中이 대나무(竹)을 잘라놓은 것과 같이 똑똑하게 생긴 模樣의 입을 가지면 平生에 衣食이 豊富하며 학(鶴)이나 거북(龜)과 같이 長壽하며 福이 있어 便宜하게 살며 吝嗇하여 모든면에 計算이 分明하다.
- \*鮎魚口 : 메기(鮎魚)의 입模樣으로 兩脣이 圓形이며 脣尖이 넓고 아래로 向한 模樣의 입을 가지면 모든 일이 잘되지 않으며 가난을免치 못한 채 黃泉을 찾아가게 되며 僻하는 일이 언제나 잘 되지 않는다.
- \*鱗魚口 : 붕어(鱗魚)의 입模樣으로 적고 양쪽 끝이 아래로 숙인 模樣의 입을 가지면 한平生 衣食이 不足하며 僻하는 일마다 이루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며 쓸데 없이 歲月만 보내게 된다.
- \*覆船口 : 입끝이 부서진배(破船)를 덮어(覆)놓은 模樣과 꼭 같으며 소고기(牛肉)의 빛과 같은 模樣의 입을 가지면 이리 저리 흩어져 거지가 아니면 그와 닮은 生活을 하게되며 僻하는 일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니 山神께 많은 功을 드리라.

4. 邪鬼信仰의 療法 : 土俗의인 信仰인 邪鬼信仰에 依한 疾病의 治療方法으로 邪鬼의 侵入으로 因해 疾病이 되었다고 보는 患者에게 直接 正面的인 攻撃을 加하는 즉 毆打法, 境壓法, 火氣法, 刺傷法, 封縛法 등과 歡心을 얻어 退鬼, 放鬼 하는 恭順法, 呪符法, 恭物法등이 있다. 이러한 土俗의인 民俗信仰에 依한 口腔領域 疾患의 治療法을 몇가지 紹介한다.<sup>41)</sup>

\*神중에 韓國의 巫神은 273種이라 하는데 이중에 人神은 身體의 部位에 따라 머무는

날짜가 있어 口腔에는 5日 齒牙에는 13日에 머무는 날로 되어 있어 이 날은 醫藥의 效驗을 보지 못함으로 醫師의 治療를 받지 않는 날이라고 되어 있다.

- \*무섭게 毆打하여 鬼神을 逃亡하게 하는 毆打法으로 胡挑가지로 患者를 毆打하면 病이 나간다. 즉 治癒 된다.
  - \*封縛法이라 해서 東쪽에 向한 복숭아나무 가지를 잘라 그 가지에 患者의 이름을 적고 종으로 密封해서 길바닥에 버려두면 먼저 주워가진 사람에게 病이 옮겨 가서 病이 낫는다.
  - \*腫氣가 났을때 그 위에도 狗字를 쓰고 周圍에 虎字를 4乃至 9字를 써 놓으면 腫氣가 가신다. 이 方法도 封縛法이다.
  - \*恭順法의 原理로 모든 病은 神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醫藥으로는 效驗이 없고 巫覡이 祈禱하면 낫는다.
  - \*모든 病에는 古木 또는 岩石에 偶像을 모시고 誠心끝 祈禱를 하면 낫는다. 이도 역시 恭順法이다.
  - \*接觸해서 病을 물리치는 方法으로 혀(舌)에 病이 생겼을때 헌집(古家)의 壁土를 핥으면 혀의 病이 낫는다.
  - \*입술(脣)에 濕疹이 생겼을때 동이 틀 무렵 濕疹위에 墨을 칠하고 뜨는 해를 맞이하면 낫는다는 接觸法의 한가지다.
  - \*齒痛이甚할때 張將(將神)과 입술을 마주대면 낫는다는 接觸法도 있다.
  - \*齒痛에는 해물무렵 땅바닥에 圓形의 輪을 그리고 그 안에 十字를 쓰고 그 中央에 木을 꽂으며 祈禱하면 齒痛이 사라진다.
- 以上과 같은 土俗의인 信仰으로 口腔領域의 疾患이 治療된다는 즉 靈의 存在物의 追放으로 正常狀態로 되돌릴 수 있다는 疾病觀은 現在 우리의 常識으로는 理解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周圍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信仰으로 口腔에서 부터 難治病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療法으로 治癒를 期待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39) 趙誠佑 : <紹介> 觀相大典, 明文堂, p.5, 1985. 40) 趙誠佑 : <諸口說明> 上揭書, p.178-185. 41) 村山智順 : <讓鬼編> 朝鮮의 鬼神, 朝鮮總督府, p.255-479. 1929.

5. 呪符信仰의 療法: 祛病符라는 符籙의 힘을 빌어 靈的存在物의 侵入으로 앓고 있는 患者에게서 靈的存在物을 追放하는 信仰으로 符籙은 呪文과 呪符로 이루어지는데 이 自體가 呪術의 威力이 있다고 보아 靈的存在物인 鬼神, 邪鬼, 또는 惡靈, 精靈들이 이 威力에 恐怖를 느끼어 退去한다고 믿는 信仰이다.<sup>42</sup>

符籙에는 文字符와 圖符가 있고 患部에 直接 墨으로 그리는 方法과 朱砂로 巫覡, 盲卜者, 僧侶등에 依하여 作成되는 수도 있으나 家庭에서 精誠껏 그려지는 수도 있다.<sup>43)</sup> 이 符籙을 쓸때에는 齒牙를 세번 두들기고(即齒) 淨水를 입에 머금어 東쪽을 向하여 내뱉고 다음과 같이 呪文을 외운후 朱砂로 黃紙에 法에 따라 쓰게 된다.

呪文: 叱出赫赫陽陽 日出東邦 吾勅此符 普除不祥 口吐三昧之火 服飛門邑之光 捉怪使天蓬力士 破疾用穢跡 金剛降伏 妖怪化爲吉祥 急急如律令<sup>44)</sup>.

아래에 口腔領域의 疾患에 使用되는 符籙을 列舉해 본다.<sup>45)</sup>

1) 人中腫患符: 人中이 헐거나 부스럼이 생길 境遇는 符籙을 써서 불태운 재(灰)와 生蒲黃 2錢 川蓮 1錢 얼음 조각 1錢을 곱게 빻은뒤 麻油로 개서 患部에 바르면 곧 效驗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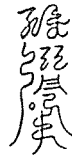
2) 舌上生瘡符: 혀(舌)에 부스럼이나 腫氣가 나서 아플 境遇는 대추씨를 곱게 가루 내어 위의 符籙을 써서 태운 재와 섞어 바르면 神效하다.



3) 舌瘡毒符: 혃바닥에 腫氣가 생겼거나 혃바늘이 선 사람은 이 符籙을 불사른 재와 吳茱萸 一錢半을 곱게 빻아서 食醋에 같이 개어서 잠자리에 들어갈 무렵 발바닥에 붙여두면 곧 效驗이 있다.



4) 風齒鎮痛符: 風齒病 혹은 蟲齒로 因하여 齒牙가 몹시 아플때는 관중쌀을 삶은 물에 위 符籙을 태운 재와 섞어 마시고 또 몇번이고 양치질 하면 效驗이 있다.



5) 口蓋生腫符: 입천장에 부스럼이나 腫氣가 생겨 고생할 때는 食鹽을 볶아서 덩이 白礬 3分과 섞어 빵아서 위의 符籙을 태운 재와 섞어놓고 귀후비개 같은 것으로 떠서 腫氣가 생긴 곳에 하루 5-6차 바르면 治療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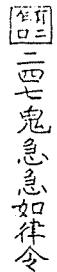
6) 齒痛治療符: 風이나 蟲으로 齒牙가 아플 때 위의 符籙을 朱砂로 써서 재를 만들어 薄荷 1錢 다린 물에 混合하여 입에 물고 몇번이고 양치질을 되풀이 하면 痛症이 가신다.



7) 止齒痛符: 風齒 또는 蟲齒로 齒牙가 몹시 아프거든 위의 符籙을 朱砂로 써서 불 태워 재를 물에 타서 마시면 齒痛이 사라진다.



8) 齒痛治療符: 이 符籙을 써서 아픈 齒牙에 물고 있으면 痛症이 사라진다.



9) 止血靈符: 발치 또는 事故로 다쳐 피가 몹시 흐를때 이 符籙을 태워 바르면 止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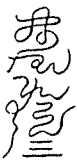


10) 牙痛治療符: 風蟲이나 熱로 因하여 어금니가 몹시 아플때는 이 符籙을 朱砂로 쓴 다음 불에 태워 재를 만들어 石膏 5錢을 대린 물에 타서 養齒질 또는 服用하면 痛症이 사라진다.



42) 河孝吉: <呪符> 서울六百年史 民俗篇, p.891-900. 1990. 43) 村山智順: <呪符法> 上揭書, p.409. 44) 村山智順: <祛病符> 上揭書, p.411. 45) 韓重洙: <外科 各部門에 對한 符籙> 靈符作大典, 明文堂, p.334-340, 1966.

11) 齒牙腫治療符：齒牙를 다치거나 이틀이



끓여 헤어지거나 기타의 腫氣가 생긴 境遇 위의 符籍을 써서 불태워 재를 만들어 荊芥防風 달인 물에 타서 服用하고 또는 이 물을 머금었다 뱉으면 治療가 된다.

6. 禁忌信仰의 豫防：不測의 事態를 豫防 또는 對抗하는 積極的인 技術을 呪術이라고 한다면 戒慎하는 消極的인 對應策을 禁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豫兆나 占卜으로 豫知된 不吉한 事態를 招來하기 쉬운 要素를 避하고 禁止하는 行爲의 習俗으로 超自然的 背景으로 한 非日常과 日常, 聖과 俗, 淨과 不淨의 두 領域으로 區分하고 非日常, 聖, 淨을 警戒하고 멀리하는 一面과 두려움을 忌避하는 一面의 兩面性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犯하면 超自然的인 制裁가 따른다고 믿는 個人的 感覺을 包含한 社會的 習俗의 總稱이기도 하다. 禁忌는 神聖한 것에 對하여 몸을 警戒하는 境遇와 不淨(穢)에 對하여 그것을 忌하는 境遇가 있는데 神聖한 것에 對한 忌는 積極的인 것으로서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罪穢를 除去하기 爲한 禊나 浴을 한다. 그러나 不淨에 對한 忌는 不淨에 接近하지 않으려는 消極的인 行爲를 한다.<sup>46)</sup> 우리나라의 禁忌와 關聯하여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말이 “가린다” “꺼린다”가 있는데 이에 對象은 “가리는 것” 즉 禁忌를 말한다. 이 禁忌에 適用되는 範圍에 따라 一般的인 禁忌와 特別한 境遇에 限해서 지켜지는 禁忌가 있다.<sup>47)</sup> 우리 周邊에서 日常的으로 行해지는 禁忌行爲에 口腔 領域과 關聯있는 것<sup>48)</sup>을 살펴보면

\* 다듬이들을 베고 누우면 입이 빠들어 진

다.\*

\* 밤 먹다가 손가락을 바꾸면 혀가 둘 생긴다.\*

\* 상추쌈 좋아하면 입이 커진다.\*\*

\* 祭祀지낸 감주를 먼저 먹으면 입술이 부르튼다.\*\*

등이 있고 妊娠중에 胎內의 새 生命이나 出産을 爲해 “가리는 것”은

\* 토끼고기를 먹으면 언챙이를 낳는다.\*

\* 産月에 들어 아궁이, 굴뚝, 방을 修理하면 언챙이를 낳는다.\*

\* 産月에 문구멍을 바르면 難産란다.\*\*

\* 이(齒牙)를 빼서 妊娠중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면 齒牙가 늦게 난다.\*\*\*

\* 妊娠한 女子가 방에 앉아 있을때 방고랑을 쏘시면 언챙이를 낳는다.\*\*\*

\* 쌍밤 먹으면 쪽니 난다.\*\*\* 등이 傳해지고 있다.

### 巫俗信仰과 治病

朝鮮朝에서는 國初부터 庶民에서만이 아니라 中央醫療機關에서까지 民俗信仰이 介在되어 太祖때에 이미 國巫 加伊에 대한 記錄이 있고<sup>49)</sup> 世宗11년에는 巫覡과 醫生이 같이 協力하게 했다던가,<sup>50)</sup> 活人署에는 公公然하게 巫方으로 醫療行爲를 하였다.<sup>51)</sup> 燕山君때에는 星宿廳에 國巫를 두어 都巫女와 隨從巫女로 하고 雜役에서 除外할<sup>52)</sup> 程度로 서울의 있는 巫覡은 待遇를 받으며 患者를 治療하였다. 그러나 그 후 巫覡으로 因한 많은 弊害가 있음이 認定되어 肅宗때에 于先 活人署에서 巫覡을 除外하고<sup>53)</sup> 成宗<sup>54)</sup>부터 中宗<sup>55)</sup> 正祖<sup>56)</sup> 때에는 都城안에 모든 巫覡을 漢江 밖으로 쫓아 버렸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庶民들은 病이 들면 鬼神에

46) 高大民族文化研究所：〈呪術과 禁忌〉韓國民俗大觀 3. 民間信仰·宗教, p.365-367, 1982. 47) 河孝吉：〈禁忌·厄〉서울六百年史(民俗篇) p.875-890, 1990. 48) 口腔 및 齒牙와 關聯이 있는 禁忌는 \*서울特別市：〈禁忌·厄〉서울六百年史(民俗篇) p.878-884, \*\*高大民族文化研究所〈禁忌語·俗語〉韓國民俗大觀 6, 704-715, \*\*\*서울特別市：〈禁忌語〉서울의 전통문화 제2집, p.799-837 에서 拔取함. 49) 太宗實錄 卷三十五(14), 朝鮮王朝實錄 2, 國史編纂委員會, p.205, 1968. 50) 燕山君日記 卷六十一(20) 朝鮮王朝實錄 14, 國史編纂委員會, p.43, 1968. 51) 世宗實錄 卷四十四(6), 上揭書 3, p.176. 52) 世宗實錄 卷一百二(8), 上揭書 4, p.516. 53) 肅宗實錄 卷十八(22), 上揭書 39, p.101. 54) 成宗實錄 卷九十八(28), 上揭書 9, p.637. 55) 中宗實錄 卷十(27), 上揭書 14, p.401. 56) 正祖實錄 卷一(44), 上揭書 44, p.582.



게 祭祀를 드리고 精靈을 慰勞하며 惡靈을 쫓아 病이 나가게 하는 巫俗的 療法이 風習의 行事로 固着되어 숨어서 내려 오고 있기 때문에 巫覡에 依한 救病祭는 그칠줄을 몰랐다. 즉 巫俗信仰은 約 3000年 전 殷나라때의 甲骨文의 呪文과 같은 呪術이 朝鮮時代에 이르러서도 그 影響力을 發揮해가고 있던 原始信仰의 殘在로 完全히 土着化된 民俗信仰이라 말할 수 있다.

이 巫俗信仰에서 呪術者를 巫人(무당)이라 하고 巫人은 1) 神病이라는 宗教體驗을 通해 神의 靈力を 獲得하여 神과 서로 通하는 神權者로 2) 巫人이 體驗하여 信仰하는 神은 山神, 堂神, 七星神, 龍神등 自然神과 또는 將軍神, 王神 등이며 3) 巫人은 이들 神의 靈力에 依하여 吉兇禍福의 人間事를 굿으로 調節하는 能力을 가진 4) 民間層의 宗教的 指導者라 定義할 수 있다.<sup>57)</sup>고하는 즉 神과 人間의 사이에 靈媒的 役割을 하여 神의 뜻을 豫知하며 人間에게 啓示하는 한편 人間의 所願을 神에게 告하여 個人 또는 集團의 招福禍除 所任을 다 하는 使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巫覡은 司祭의 機能, 疾病의 退治를 爲한 治病의 機能, 그리고 人間社會에 到來할 未來에 대한 占卜, 豫言의 機能 등이 認定되고 있다.<sup>58)</sup> 이들 중 여기에서는 治病, 救病의 機能을 살펴 보고자 한다.

巫人의 齒病의 治病에 關係서는 殷時代(BC. 1384)의 甲骨文에 武丁의 齒病을 묻은 呪文에서 父乙(神)의 노여움에 依하여 發生된 病이라는 記錄<sup>59)</sup>으로 보아 巫人의 治病 機能은 古代에서 부터 認定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救病을 爲한 巫人들의 呪術行爲에는 驅離나 儼禮, 또는 安宅굿 등 疾病의 豫防措置로서 發病의 原因이 된다고 믿는 病魔의 雜鬼來侵 防止를 爲한 事前 豫防呪術과 病魔의 雜鬼가 來侵하여 疾病을 얻었을 때에 鬼神의 解, 散, 除 등을 爲한 治病呪術行爲 즉 “풀이”라는

굿으로 結滯를 풀고, 憤怒를 풀며 憎惡를 풀어 去穢就淨, 消罪返善, 直禍厄, 近吉祥, 逃惡精, 親善靈 등의 呪術行爲를 한다. 患者의 病이 어느 程度 治癒되었을 때나 病의 差度가 없더라도 病鬼가 患者로 부터 떠나가고 있다고 가정할 때 小規模의 “푸닥거리” 또는 “拜送굿”같은 大規模의 巫儀로 病魔의 退去를 人爲的으로 誘引하거나 再侵을 하지 못하게 救病呪術을 한다.<sup>60)</sup>

救病呪術의 巫儀를 救病祭 또는 “病굿”이라 한다. 救病祭는 普通 不淨, 가망, 上山, 뒗전 등 네 거리로 된 “푸닥거리”라는 病의 原因이 된 障礙物을 除去함으로써 病을 낮게하는 굿을 말한다. 이 “病굿”의 첫 거리 즉 “不淨거리”는 굿당을 淨潔히 하는 祭次요, “가망거리”는 諸神位를 불러 드리는 거리이고 “上山거리”는 굿의 中心이 되는 거리로서 祝願, 祈願을 爲한 祭次이다. “뒗전”은 굿의 마무리로 雜鬼들에게 飲食을 풀어 먹이여 送神하는 祭次로 “뒗전풀이”라고도 하는 굿으로 全體를 끝낸다.<sup>61)</sup>

한편 巫俗信仰에 混入된 佛教系 神인 世尊神, 佛師神, 佛神, 동진菩薩神, 觀世音菩薩神, 玉天大師神, 無學大師神, 釋迦如來世尊神, 彌勒神 등이 있어 祭儀인 굿에서도 佛教 要素를 많이 發見할 수 있다. 굿의 한 거리인 帝釋거리(帝釋굿)는 巫人이 고깔을 쓰고 흰장삼을 입은 위에 빨간 가사를 두르고 제금(바라)를 치면서 巫歌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釋迦念佛을 외워 佛教의 僧侶를 표방한다. 이때 巫人은 목에 百八念珠를 걸고 三佛帝釋를 그린 三佛扇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굿할 때 부르는 巫歌에도 佛經과 念佛이 直接 노래로 불리어진다.<sup>62)</sup> 이러한 救病祭는 모든 疾患에 應用되는 祭次로 口腔領域의 疾病에도 巫覡들의 依한 救病祭인 病굿, 患者굿, 푸닥거리 또는 별상굿 등을 擧祭하는데 治病系統의 巫歌<sup>63)</sup>로는 神將巫歌, 손님巫歌, 별상巫歌 등이 있으나 따로이 制定된

57) 金泰坤: <巫俗>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p.213, 1987. 58) 柳東植: <巫覡의 機能>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大出版部, p.207-212, 1986. 59) 戶出一郎: <甲骨文に表れた殷人に疾病についての> 日本齒科醫史學會會誌 3(2), p.18-22, 1975. 60) 朴桂弘: <救病의 機能> 民俗信仰, 民俗學會編, 敎文社, p.38-40, 1987. 61) 柳東植: <굿의 基本形態와 世界理解>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p.302-303, 1986. 62) 金泰坤: <巫俗에 佛教 受容>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p.337, 1987. 63) 金泰坤: <巫歌>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p.226, 1987.

巫歌나 呪經은 없고 一般的인 治病祈願祭儀에 준해 救病祭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 讀經信仰과 治病

巫俗에 의한 救病法은 疫神을 힘으로 驅逐하는 것이 아니라 犯接한 疫神을 歌舞로서 待接하고 惡靈이 스스로 물어나던가 怒氣를 풀게하는 것으로 “拜送굿”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讀經의 經文이 佛教 道教 巫俗 등의 思考가 混合 記錄되어 있어 讀經으로 神將의 威力을 발휘하여 災厄과 雜鬼를 물리치는 方法이다. 經文에는 神將經, 玉匣經, 玉樞經, 逐鬼經, 鐵網經, 博殺經, 解冤文 등이 있어 이들 經文에 絶對的 呪力이 있다고 믿는다.<sup>64)</sup>

讀經儀式은 降神讀經者에 의하여 正初에 “安宅” 祈願, 秋收를 하고 “告祀” 祈願, 除厄을 爲해서는 “도통잡이”등을 하는데 治病을 爲해서는 “鬼神잡이”를 한다. “鬼神잡이” 때에는 참나무나 복숭아나무로 만든 “神將대”를 “대잡이”가 잡고 讀經者의 降神祝願에 따라 神將이 내리면 “神將대”가 흔들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讀經者가 神將의 意思를 묻고 “神將대”의 反應에 따라 患者에 머무르고 있는 病魔, 鬼神의 存在를 確認하고 處方이 내려 진다. 여기의 處方은 醫藥의 處方이 아니라 精靈이나 惡靈 또는 雜鬼를 追放하기 爲한 讀經, 呪符, 巫儀 등에 의한 適切한 方法을 啓示하는 것이다. 讀經者는 啓示에 따라 經文을 口誦하기도 하고 符籙을 붙여 놓고 呪文을 口誦하기도 한다. 巫儀만이 效驗을 본다고 하면 굿과 讀經을 같이 하며 북과 징을 치며 伴奏를 한다. 모든 疾病, 口腔의 疾病도 같은 形式 따라 舉行한다.<sup>65)</sup>

때로는 판수나 法師, 경꾼이 千手經과 神將經을 읽어서 神將을 請해 드린다음 玉樞經, 百殺經, 逐鬼經 등을 읽어 雜鬼를 無力하게 만든 다음 “神將대”를 내려 雜神을 鬼神단지에 몰아

넣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다 묻는다. 이렇게 해서 疾病의 原因이 되는 雜鬼를 患者의 몸에서 떼어 내어 病을 낮게하는 方法도 있다.<sup>66)</sup>

### 佛教信仰과 治病

佛教醫學은 古代 印度醫學과 佛教가 多彩롭게 調和되어 成立되었다고 보아 그 紀元은 印度醫學으로 부터 비롯하였음을 알 수 있고 僧侶에 의해 發展繼承되어 많은 僧醫의 業績도 알고 있다. 그러나 僧侶의 身分으로 醫業이 禁止된 狀況에서 生業이 아닌 許容된 範圍에서나마 佛教醫學은 많이 發展하여 우리나라에서도 新羅時代에 佛教醫書가 著述 刊行되기도 하였다.<sup>67)</sup> 그러나 佛教의 窮極의인 理念이 醫學만은 아니어서 醫學을 아는 僧侶들도 投藥이나 鍼灸에 의한 醫學의 治療手段보다 佛菩薩의 加被를 祈願하고 讀經이나 呪文 등 醫學의의 手段으로 治病을 試圖하여 宗教의인 精神療法에 偏重되어 佛教醫學은 醫學으로서의 體制를 定立하지 못하고 現在 傳해지고 있다.<sup>68)</sup>

口腔領域에 關해서는 이미 高麗時代의 醫學에서 八萬大藏經에 있는 佛說呪齒經<sup>69)</sup>과 陀羅尼雜集에 있는 呪齒痛陀羅尼<sup>70)</sup>를 紹介한 바 있다.<sup>73)</sup>

朝鮮時代의 佛齊에 關한 記錄은 世宗 3年(1421) 8월에 讓寧君 楸가 瘧疾을 앓고 있을 때에 御醫와 呪僧을 보내 治療케 했다는 記錄<sup>72)</sup>과 世宗 4年(1422) 1월에 救療所를 都城안에 東과 西에 設置하고 惠民局 提調 韓尙德에 命하여 醫員 60名과 大師 坦宣으로 하여금 僧徒 300名을 따르게 하여 軍人의 疾病, 傷折者를 救療케 하였다는 記錄도 있다.<sup>73)</sup>

朝鮮의 太祖가 抑佛揚儒를 朝鮮王朝의 基本政策으로 宣布했으나 오래 전부터 내려온 佛教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도리어 民俗信仰으

64) 金泰坤 : <讀經信仰> 上揭書 p.25. 65) 金泰坤 : <讀經信仰> 上揭書 p.26. 66) 金泰坤 : <民間療法> 上揭書 p.308. 67) 新羅法師方 : <鍼灸服藥吉凶日 第七 服藥用意> 醫心方 卷二, <治積聚方 第一> 醫心方 卷十, <房內用藥石 第二十六> 醫心方 卷二十八. 68) 申貞均 : <佛教醫學의 歷史의 考察> 佛教와 醫學, 東國大學校 譯經院, p.22, 1983. 69) 東晉竺曇無蘭譯 : <佛說呪齒經> 高麗大藏經 卷十三, 東國大學校, p.1152, 1960. 70) 陀羅尼雜集 <呪齒痛陀羅尼> 上揭書 卷三十 p.1250. 71) 奇昌德 : <高麗時代의 口腔醫學에 대한 考察> 大齒協誌 28 (8), p.713-719, 1990. 72) 世宗實錄 卷十三(1), 上揭書 3, p.445. 73) 世宗實錄 卷十五(3), 上揭書 3, p.471.

로 變質되 藥師菩薩이 그 信仰의 對象이 되기도 하였고<sup>74)</sup> 彌勒이 그 主된 信仰이 되기도 하면서<sup>75)</sup> 彌勒의 靈驗함을 宗教的 現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治病을 爲한 佛像의 顔面部를 때어 服用하는 行爲까지 나타나게 되었다.<sup>76)</sup> 또 한편 巫俗이 迎入되어 절(寺刹)에 거의 例外없이 大雄殿 옆 뒷쪽에 山神堂(山神閣)을 마련하고 山神탱화를 걸어 놓는다. 이 山神탱화는 점잖게 생긴 白髮老人이 호랑이(虎)를 타거나 호랑이가 老人 옆에 꾸구리고 앉아 있는 巫神圖와 같은 것으로 傳統的인 山神이 佛敎에 迎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佛供의 對象神이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이 아닌 境遇도 있다. 즉 災殃의 發生에는 山神佛供, 祈子祈願 때에는 七星佛供 등이 行해져 佛敎의 民間信仰 내지 巫俗的 併用을 볼 수 있다. 特히 佛殿에 飲食과 돈을 놓고 幸運과 治病, 財數發願을 비는 佛供 등은 巫人의 재수굿, 병굿, 祈子祈願 三神굿에 比較될 수 있어 佛供과 巫儀는 서로 깊은 關聯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7)</sup> 이렇게 民間社會에서는 巫俗의 內容을 僧侶에 의하여 口腔疾患도 包含된 治病祈願佛供이 行해지기도 하고 있다.

#### 民間療法

民間療法은 그 民族이 獨特하게 使用하는 治療法으로서 自然性의 溫泉을 利用하는 溫泉療法<sup>78)</sup>과 椒井, 椒泉, 藥水, 藥井 등을 利用하는 冷泉療法,<sup>79)</sup> 또 人爲的인 施設에 의한 汗蒸療法,<sup>80)</sup> 自然의 砂浴<sup>81)</sup> 등이 있다. 또 民藥이라는 自然의 草木이나 動物 또는 動物의 排泄物, 魚, 蟲 등을 주로 應用하는 것으로 漢醫學에서와 같이 生理, 病理, 治療法등의 論證과 處方이 整然하게 되어 있지 않고 反復된 經驗에 의

한 單純하고 素朴한 民藥에 의한 療法도 있다.<sup>82)</sup>

#### 1. 溫泉浴

溫泉浴에 의한 療法은 三國時代에서 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朝鮮時代에 들어와 太祖가 卽位한 8月과 다음해 4月에 가벼운 病으로 平山溫泉에 가시어 約 보름씩 溫泉浴을 하고 돌아왔다는 記錄이 있다.<sup>83)</sup> 그후 定宗<sup>84)</sup>, 太宗<sup>85)</sup> 등이 平山溫泉, 伊川溫泉 등에 자주 幸次 하하였다. 世宗 9年 9月에 禮曹가 中外溫井病人救療의 事宜을 條陣하였다.<sup>86)</sup>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溫井近處에 사는 閑良人이나 僧人도 좋다, 溫井修理와 病人救療를 勸獎하는 사람을 마련할 것.
- 2) 病人들이 모여드는 程度로 보아 米豆를 供給하되 病人들을 救療하는 公設財團을 設置할 것.
- 3) 病人들의 居室의 修理와 食器 등은 官에게 供購케 하고 病人救療에는 令守들이 隨時로 考察할 것.
- 4) 모든 溫井의 財團은 米豆로 2百石을 넘지 말게 하는데 議政府의 命에 따라 諸曹가 議論하여 따르라.

등으로 된 것인데 이 制度는 溫泉이 있는 곳에 救療病院의 設置와 같은 것으로 溫泉療法의 勸獎이고 한편 溫泉을 發見하는 者에게는 賞을 주고 進級の 機會를 준다는 必要에 의한 開發에도 힘을 썼다.<sup>87)</sup> 特히 世宗은 眼疾과 脚痛에 溫泉을 많이 利用하였다. 口腔領域에서는 입안에 溫泉水를 머금거나 양치질을 하는 것으로 食鹽泉, 알칼리泉, 硫黃泉 등이 좋다고 되어 있다.<sup>88)</sup>

74) 太宗實錄 卷十五(4), 上揭書 1, p.429. 75) 金三龍: <治病> 韓國彌勒信仰研究, 同和出版社, p.189, 1987.

76) 忠北 堤原郡 錦城面 陽化里의 彌勒石佛의 境遇, 上揭書에서 引用. 77) 金泰坤: <佛敎의 巫俗 受容>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p.341. 1960. 78) 정경숙: <溫泉> 韓國 溫泉과 藥水, 하나醫學社, p.23-62, 1989. 79) 金斗鐘: <冷泉浴> 韓國醫學史, 探求堂 p.243. 1960. 80) 高大民族文化研究所: <汗蒸療法> 韓國民俗大觀, p.392-393.

81) 村山智順: <火氣法> 朝鮮의 鬼神, 朝鮮總督府, p.286. 1929. 82) 文化放送: <卷頭詞> 韓國民間療法大全, 금박출판사, p.1, 1988. 83) 太祖實錄 卷一(52), 上揭書 1, p.26. 84) 定宗實錄 卷六(1), 上揭書 1, p.184 85) 太宗實錄 卷三十五(20), 上揭書 2, p.208. 86) 世宗實錄 卷三十七(27), 上揭書 3, p.94. 87) 世宗實錄 卷八十一(7), 上揭書 4, p.142. 88) 정경숙: <含水療法> 韓國 溫泉과 藥水, 하나醫學社, p.59, 1989.

## 2. 冷泉浴과 汗蒸浴

溫泉 이외에 冷泉에 屬하는 椒井, 椒泉, 藥水, 藥井 등이 역시 民間人의 療病에 많이 利用되었다. 世宗도 世宗 26年(1444)에 淸州牧에 있는 椒水에 行次하시었다는 記錄<sup>89)</sup>이 있으며, 庶民層에서는 冷泉에 몸을 씻어 疾病을 豫防하는 風習도 있었다.<sup>90)</sup> 汗蒸浴이 文獻에 보이기는 世宗 4年(1422) 8月 汗蒸浴의 治療 效果를 調査할 것을 禮曹에게 傳達한데서 부터이다.<sup>91)</sup> 그해 10月 禮曹의 報告에 東西活人院 및 京中 汗蒸所의 僧人들이 病症을 가리지 않고 出汗케 함으로 간간히 死亡하는 사람이 있어 앞으로는 門外와 京中에 汗蒸所를 각각 한곳씩을 두고 典醫監, 惠民局, 濟生院으로서 各處에 醫員 2名씩을 두어 病候를 診斷한 다음 出汗케 할 것이고 만일에 仔細히 診斷치 않고 사람을 傷하게 하면, 醫員, 僧人을 莫論하고 모두 論罪하며 東西活人院 및 京中の 汗蒸所 3곳을 그대로 繼續할 것이라 하였다.<sup>92)</sup> 이 報告書의 內容으로 보아 汗蒸所는 世宗 4年 以前부터 있었다는 것이고 醫員과 汗蒸僧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汗蒸浴은 現在도 즐겨 使用되는 庶民의 손쉬운 治療機關이다. 齒科領域에서는 該當事項이 없을 것으로 보아 簡畧하게 紹介한다.

## 3. 歲時風俗과 慣習

우리나라 歲時風俗에 正月 보름 전날인 14日 밤에 밤, 호두, 잣, 땅콩을 먹는데 밤이나 호두를 딱 깨물며 “내 불목!”하면 그 해 一年間은 몸에 腫氣가 나지 않는다고 믿어 이것을 “보름 먹는다”, “불목 깨문다”고 하며 이와 같은 果實을 깨물어 腫氣를 豫防하는 것을 畧稱 “보름”이라 하고 그날밤 깨무는 果實을 “부럼”이라 부른다. 이 “보름”은 腫氣에만 效果가 있는 것 아니고 “固齒” 즉 이(齒牙)를 단단히 한다고도 믿어 왔다.<sup>93)</sup> 義州의 風俗에는 나이 어

린 男女가 밝은 새벽에 齒牙를 단단히 하기 위하여 엿을 깨무는 “齒較”라는 風習이 있다.<sup>94)</sup> 이는 東國歲時記의 <荆楚歲時記>에서 引用한 설날에 “屠蘇酒”와 “膠牙錫”을 올린다는 記錄은 “齒較”와 같은 것으로 여기의 “膠牙錫”은 “이굳이엿” 즉 이를 단단히 하는 엿을 말한다.<sup>95)</sup>

陰曆 6월 15일을 “流頭日”에 山에 올라가 東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집에서 장만해 온 “水團”이나 “수교위”를 그 물 가에서 먹으면 몸에 잔병이 없고 재수가 좋다는 疾病을 豫防하는 風習도 있다.<sup>96)</sup> 이 風習과 恰似한 것으로 伏날 藥泉에서 藥水를 마시면 몸에 病이 나지 않는다는 즉 疾病의 豫防法도 있다.<sup>97)</sup>

產母의 禁忌 飲食으로 김치를 먹으면 產母의 齒牙가 傷한다. 豆腐를 먹으면 產母의 이(齒牙)가 傷한다. 호박을 먹으면 이가 傷한다. 굳고 단단한 飲食을 먹으면 齒牙가 傷한다. 찬 飲食을 먹으면 齒牙가 저려서 傷한다. 는 등의 김치, 豆腐, 호박, 굳은 飲食 등을 삼가 齒牙를 保護하라는 產俗<sup>98)</sup>도 있고, 陰曆 동짓날 동지팔죽을 邪鬼가 들만한 곳 즉 房門, 광문, 大門, 마당, 뒷뜰 등에 뿌려 厄運 病氣를 미리 豫防하는 風習도 있다.<sup>99)</sup>

朝鮮時代의 庶民들의 대부분은 食事後 반드시 漱口으로 입을 헹구었다. 바위사이를 急流가 흐르듯이 이 사이를 소리를 내며 養齒질 하였다. 농茶로도 했고 食鹽으로도 朝夕으로 養齒질을 하는 것이 兩班의 慣習이었던 것 같다.

또 男子들은 粧刀 또는 족집개에 이쑤시개를 붙여 지니였고 때로는 허리띠 裝飾에 이쑤시개 귀후비개 등을 寶石裝飾 끝에 달아 허리에 차기도 하였다.

女子는 뒤꽂이 또는 노리개로 방아다리 노리개, 삼작 노리개 등에 귀후비개, 이쑤시개를 裝飾으로 해서 恒常 몸에 지니고 食後에는 반

89) 世宗實錄 卷一百三(25), 上揭書 4, p.545. 90) 金泰坤: <豫防法>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p.301. 1987.  
91) 世宗實錄 卷十七(11), 上揭書 2, p.494. 92) 世宗實錄 卷十八(1), 上揭書 2, p.505. 93) 金泰坤: <民間療法>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p.300. 1987. 94) 金星元: <歲時風俗> 韓國의 歲時風俗, 明文堂, p.59. 1987.  
95) 洪錫謨: <正月元日> 東國歲時記, 上揭書 p.155. 1987. 96) 金泰坤: <民間療法>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p.301. 1987. 97) 金星元: <藥水마시기> 風俗記, 上揭書 p.104. 98) 任東權: <產後에 禁忌하는 飲食物> 韓國民俗學論攷, 集文堂, p.168-169, 1987. 99) 洪錫謨: <冬至> 按荆楚歲時記 共工氏有不才子 以冬至死爲疫神 畏赤小豆 故冬至日作粥以讓之. 東國歲時記, 明文堂, p.241, 1987.

드시 齒牙를 淸掃하는 慣習이 있었다.<sup>100)</sup> 이러한 歲時風俗이나 慣習은 健康한 齒牙를 保存하게 한 智慧의 遺物이라고 指摘하고 싶다.

#### 4. 民藥療法

民藥이라 함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民間의 藥 또는 民衆의 藥 즉 醫學的으로 分明한 理致를 가춘 醫藥이 아니라 非專門家가 疾病에 대한 經驗에 의하여 얻은 效果를 믿고 反復 試圖하는 療法으로 반드시 效驗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sup>101)</sup> 多幸히 文化放送(M.B.C)에서 우리나라 民藥療法을 多年間 收集하여 整理한 것이 있어 參考하여 記錄(部分轉載)해 둔다.<sup>102)</sup>

##### 1) 口唇이 부르들 때 :

- \* 소금을 비벼서 口唇에 바른다.
- \* 황백피나무 껍질을 粉末로 만들어 口唇에 바른다.
- \* 토종꿀을 就寢전에 口唇에 바르고 잔다.
- \* 복숭아씨를 찢어서 돼지기름에 개서 바른다.

##### 2) 口瘡 :

- \* 구기자나무를 달여서 마신다.
- \* 입안에 난 各種 炎症에 가지꼭지의 흰 部分이 많은 部位를 태워서 바른다.
- \* 白礬을 태워서 粉末로 하여 입에 바른다.
- \* 白礬을 태워서 가루내어 황련가루에 반반씩 섞어 患部에 뿌린다.
- \* 부들꽃의 가루를 볶아서 입안에 바른다.
- \* 五倍子 달인 물을 입안에 바른다.
- \* 이질풀을 진하게 달여서 입에 머금는다.

##### 3) 口안이 熱었을 때

- \* 甘草를 달여서 따듯할 때 입에 물고 있다가 삼킨다.
- \* 결정차를 진하게 달여 입에 물고서 10분 이상 있다가 뱉는다.
- \* 固白礬을 가루를 내어 바른다.
- \* 꿀을 입에 넣고 머금는다.
- \* 사마귀를 곱게 가루내어 입안에 넣는다.
- \* 쇠간을 썰어서 1회에 30g씩을 1日 6回 먹는다.

\* 五倍子茶를 끓여서 그 물이 목에 당도록 물고 있다가 삼키든지 뱉든지 한다.

\* 토마토를 몇 개 먹는다.

##### 4) 口瘻을 뚫었을 때 :

- \* 白礬을 오래 끓여서 고백반이 되게 하여 입에 물고 있게 한다.
- \* 복나무열매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혀에 뿌린다.
- \* 애기똥풀을 썰어서 즙을 내어 입에 물고 있다.
- \* 오미자를 볶아서 같은 다음에 다려서 따듯할 때 혀를 문지르거나 입에 물고 있다.
- \* 붉은 팔 3홉을 가루로 만들어 물 3되에 넣고 달여서 물이 1/3로 줄면 마신다.
- \* 꿀을 혀에 발라 물고 있다가 삼키는 것을 반복한다.
- \* 五倍子를 달여서 입에 물고 있다가 뱉는다.

##### 5) 口에서 냄새가 날 때 :

- \* 菊花꽃을 달여서 마신다.
- \* 김을 삶아서 하루 세번씩 먹는다.
- \* 나팔꽃의 씨를 곱게 빻아 이를 닦는다.

##### 6) 齒痛 :

- \* 맨드라미꽃을 종이에 말아 담배 피우듯이 연기를 쏘인다.
- \* 고사리 노가지나무 맹감나무뿌리를 삶아서 두어 번 마시면서 한번은 입속에 물고 있다가 식으면 뱉고 다시 머금는다.
- \* 담쟁이덩굴의 줄기를 진하게 달여서 두어방울 아픈 이에 떨어뜨린다.
- \* 대추씨를 발라내고 대추속에 유황을 넣어 구워서 아픈 이에 넣는다.
- \* 도꼬마리의 대를 불에 구워서 아픈 이에 문다.
- \* 도꼬마리씨의 대를 불에 구워서 아픈 이에 문다.
- \* 미역의 귀(대가리)를 아픈 이에 물고 있다.
- \* 박하유를 유리병에 넣어 두면 살얼음처럼 서리게 된다. 그것을 한조각 꺼내 아픈 이속에 넣거나 물고 있다.
- \* 뱀딸기뿌리를 삶아서 뿌리를 아픈 이로 물고

100) 檀國大學校 博物館 陳列品중에서 觀察됨.

101) 安德均 : <民間療法> 서울六百年史(民俗篇), p.831. 1990.

102) 文化放送 : <이비인후, 치, 안과> 韓國民間療法大全, 금박출판사, p.234-241, 1988.

- 있다.
- \* 버드나무가지 삶은 물을 입에 물고 있다.
  - \* 벗집을 삶아 그 물을 복용한다.
  - \* 복숭아씨를 태워 술에 담그었다가 痛症 부위에 대고 있다.
  - \* 살구씨와 소금을 삶은 물로 양치하듯 머금고 있다.
  - \* 세신(죽두리풀) 뿌리를 아픈 이 사이에 끼운다.
  - \* 송실 또는 솔방울 삶은 물을 머금고 있다.
  - \* 양파 즙을 내어 숨에 묻혀 아픈 이로 물고 있다.
  - \* 오이풀을 삶아서 입에 물었다가 뱉는 것을 反復한다.
  - \* 옥시풀을 물고 있다.
  - \* 파씨를 종이에 말아서 담배 피우듯 피운다.
  - \* 호박씨를 구워서 아픈이에 물고 있다.
  - \* 홍삼가루를 아픈 이 사이에 끼운다.
  - \* 감나무가지(감나무잎) 삶은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
- 7) 蟲齒 :
- \* 감나무가지(감나무잎) 삶은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
  - \* 개나리꽃나무 삶은 물을 입에 물고 있다.
  - \* 구정나무껍질을 달여서 그 물을 입에 물고 있다.
  - \* 蟲齒나 風齒로 痛症이 심할때 마늘을 구어서 이로 꼭 물고 있는 것을 3~4번 反復한다.
  - \* 밤나무껍질을 달여서 그 물을 입에 넣고 양치하듯 한다.
  - \* 생추나무가지를 불에 달구어 썩은 이 위에 올려 놓는다.
  - \* 소금 2/3 송진가루 1/3을 混合하여 칫솔로

- 양치질을 한다.
- \* 아주까리를 반으로 잘라서 구워 이 속에 넣는다.
  - \* 약쑥을 삶은 물로 행군다.
  - \* 호도를 갈아서 말리어 가루로 만들어 蟲齒에 물고 있다.
  - \* 할미꽃뿌리를 말려서 갈아 粉末로 하여 蟲齒에 물고 있다.
  - \* 후추를 굵게 갈아 뜨거운 물에 끓여서 이 물을 숨에 묻혀서 아픈 이에 물려 준다.
  - \* 후추가루를 태워 참기름에 개어서 물고 있다.
- 8) 風齒 :
- \* 미나리를 즙을 내어 齒牙를 닦고 물고 있다 가 뱉는다.
  - \* 수양버들껍질을 갈아서 粉末로 하여 담배처럼 말아서 연기를 머금다가 밖으로 뿜어 낸다.
  - \* 오미자나무 삶은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
  - \* 율무를 삶아서 그 물을 물고 있다.
  - \* 지네발을 볶아서 粉末로 하여 齒牙에 물고 있다.
  - \* 피마자를 불에 구워서 아픈 이에 물고 있다.
- 9) 齒關炎 :
- \* 고사리, 노가리, 맹감나무를 달여서 마신다.
- 10) 齒牙가 실때 :
- \* 신것을 먹고서 이가 실때에 호두를 잘 씹어 먹는다.
- 11) 齒牙를 희게 할 때 :
- \* 상치를 말려서 粉末로 하여 양치질 할 때마다 齒牙를 닦는다.